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허다*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학교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며, 시설은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곳곳에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구적인 분위기입니다.
수업	단기어학연수에 참여한 순천향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으며, 랑가라컬리지에서 제공하는 프린트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 명의 지정강사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관리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캐나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부터 비즈니스 예절과 이메일 작성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과제는 많지 않으며, 간단한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써오는 과제나 홈스테이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Activity	Activity로는 컬링과 스노우슈잉을 하였으며, 밴쿠버 박물관과 밴쿠버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였습니다. 컬링과 스노우슈잉을 할 때는 장갑이 꼭 필요하며, 눈이나 비에 젖지 않는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노우슈잉을 할 때는 매우 춥기 때문에 목도리, 모자, 따뜻한 옷, 핫팩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위 활동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었으며, 스노우슈잉 시 장갑, 신발 및 의류 대여 시 추가비용을 내야합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날씨는 겨울이지만 한국보다 따뜻하였습니다. 한국의 초겨울 날씨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캐나다는 지역별로 기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밴쿠버의 경우 눈과 비가 많이 내려 휴대용 우산이 필수적입니다.</p>
안전	<p>안전하였고, 사람들도 대체로 친절하여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 6-7시가 지나면 가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o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는 일반가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지만, 욕실을 사용하고 난 뒤 물기를 잘 닦고, 샤워를 10분정도로 짧게 하는 점이 한국에서와는 다른 점이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개인적으로 씨리얼을 챙겨먹었으며, 점심은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홈스테이에서 싸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주로 외부식당에서 먹고 귀가하였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저녁식사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미리 하루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으며, 외부식당을 이용할 경우 tax 및 tip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탔고,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교통수단은 주로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였는데, 스카이트레인의 경우 zone별로 추가요금이 생기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및 입장료	약 700,000원	
쇼핑	약 250,000원	
합계	약 2,15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휴대용 우산은 꼭 챙겨야 하며, 맑은 날과 흐린 날의 기온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가볍게 꺼입을 수 있는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심이 현지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후기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는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3주간 지내면서도 동양인이거나, 혹은 소수민족이라 불편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자연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물을 아끼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멸종위기의 동물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외국인 친구들과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려 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캐필라노 현수교</p>	<p>스케이트장</p>
	
<p>캐나다 플레이스</p>	<p>밴쿠버 아쿠아리움</p>
	
<p>스노우슈잉</p>	<p>closing ceremony</p>